

# 꺼져가는 생명에 불을 당긴 사람들



(조재희학생을 집도하는 정한익 박사)

조재희학생은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나서 수술비 부족으로 인하여 수술을 못하고 있었던바,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에서 원호가족임을 알고 무료혜택 수술을 단행했다.

조재희학생은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나서 수술비 부족으로 인하여 수술을 못하고 있었던바,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에서 원호가족임을 알고 무료혜택 수술을 단행했다.

성명 : 조재희  
나이 : 12살  
직업 : 국민학생  
일시 : 86년 3월 13일  
병명 : 심근관상경색질환  
(선천적심근관협착)



(조재희 학생)

성 명 : 조재희

나 이 : 12살

직 업 : 국민학생

일 시 : 86년 3월 13일

병 명 : 심실중격결손(선천성심장병)

현재상황 : 원호가족 대상자로서 무료 수술 혜택을 받음.

최초 증세 발견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주임병리사 이순쾌, 심전도 판독의사 한정석』

위의 내용은 이번 4 월호 건강관리 성공사례담을 취재하고자 하는 인물의 현황이다.

기자는 자그마한 수첩에 기록된 주인공을 직접 방문하여 꺼져가는 어린 생명에 불을 당겨준 사실을 취재하여 지상에 공개코자 출발 했다. (편집자주)

### 처음엔 심전도 소견상 이상이 없었어요.

기자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마산시 남성동 91-1).

조재희학생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옆에서 도와준 이순쾌 주임병리사를 만났다. 『재희를 처음 만난것은 85년 10월 초순쯤 될 것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경상남도일대를 종합검사(간염, 심전도등)할때, 진주 도동국민학교 순서 때죠. 그당시 본인(재희)의 증세가 있었다는 말과 담임선생님 (조선규·49세) 의 의견이 있었어요(손으로 심장을 만져도 숨소리(박동)가 거칠었다). 그러나 1차 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심전도 판독의사 한정석박사(서울의대)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했죠. 박사님께서서는 본인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곧바로 담임선생님께 편지를 보내 날짜를 약속했어요. 재희 학생과의 첫대면을 설명하는 이순쾌 주임병리사의 하얀 까운이 한없이 순백하게 보였다.

### 심실중격 결손(선천성심장병)이라는 병명

『한박사님과의 확진 전날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므로 도와줘서 앞길을 열어달라는 내용이었죠.』

한박사님의 확진 날(11월 3일) 재희, 엄마(강명자·39세) 담임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진찰을 받았어요. 한박사님의 진찰결과 심실중격결손(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이것은 심전도검사상으로는 미세한 반응이 나오며 의심



◀  
확실한 병명을 알기 위해서 환자를 직접 보아야 된다는 한박사님의 말을 재희엄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지난날을 이야기하는 이순래 주임 병리사.

만 생기지, 확실한 병명은 알지 못하다고 했어요. 환자를 직접 보아야만 된다는 말이죠』 최초로 재희의 확실한 병명을 확인한 재희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역시... 지난날을 이야기하는 이순래 주임병리사의 눈에도 이슬이 맺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소재지가 마산이기에 진주의료원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부산의과 대학에 입원을 했어요』

원호가족으로서 무료혜택(수술비)은 가능했다.

『저희 협회 전직원들은 조재희학생에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협이 맨처음 조재희학생의 증세를 발견하여 입원시켰다는 것보다 조재희 학생을 살려야 한다는 뚜렷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전직원이 도와줄 길을 모색하던 중, 원호가족으로서 무료(수술비) 혜택을 주선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조재희학생의 사례도 보고 하였었죠.

병원에 입원하고 제가 몇일 후 담당 박사님을 만나보면서 수술일정이 6월달로 잡혔는데 빨리 했으면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부산의대에는 저희 건협의 운영위원과 자강암관독의사님들도 있었죠』 조재희학생을 뒷전에서 도와준 하성미국장의 말이다. 일선의 야전사령관으로서 의지적인 면과 자상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 『재희는 평소에도 성격이 차분했었지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신체이상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학교생활을 말해주는 조영주 담임선생님.



『현재는 재희의 성공사례를 교육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보건관리지침(심전도검사, 간염검사, 학생종합검사)에 정식적으로 넣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감보다는 국민보건에 이바지 해야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엿볼 수가 있었다.

재희는 성격이 차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마산시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에 초봄의 싱그러운 냄새가 기자의 콧등을 스쳤다.

이순재 주임병리사와 기자는 오후 4시 진주시 도동국민학교로 발길을 옮겼다.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진주. 도시의 거리에서 깨끗한 인상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재희는 평소에도 성격이 차분했었지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이상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재희의 학교생활을 설명해주는 조영주 담임선생님. 개인적인 사비를 써가면서 재희를 도와준 또 하나의 사랑의 손이다.

재희는 손으로 직접 만져도 심장의 박동이 심하게 뛰는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메사에 적극성이 결여 되고, 체육시간에도 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 『재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애들과는 틀렸어요. 몸은 말랐고요, 입만 컸어요. 어릴 때부터 잠 잘 때 보면 숨을 쉴 때 이불이 들썩들썩 했었죠』 재희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 해주는 재희 어머니 강명자씨.



면담 도중 가슴에 손을 대보니 심장의 박동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생각하고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심전도 검사를 본인 몰래 제가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처음에 재희를 심전도검사에 임하게 만든 조영주담임선생님, 경상도의 구수한 맛과 자상한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처음 1차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 저역시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호선생님께 의논을 했었죠. 양호선생님께서도 이상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옆에있는 이선생님(이순쾌주임병리사)께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재검사를 해달라고요』

『그때 조선생님이 다시 한번 편지를 안했더라면 재희는 지금쯤 수술을 못했을지도 몰랐어요』 옆에 있던 이순쾌 주임병리사가 말을 거들어 주었다.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도와주는 것은 저의 일입니다.

『조재희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원호가죽으로 아파트 관리원으로서 온가족(8명)을 먹여살려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술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교성적도 매달 떨어지고,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허공만을 응시하는 재희를 볼 때면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학생을 도와준다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조영주선생님의 가치관에 기자는 머리를 숙였다.

3월 14일 조재희를 만나러...

마산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던 오전 8시 30분, 기자와 이순쾌 주임병리사 그리고 강성철서무과장은 함께 부산행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재희를 만나러 갔다.

부산의과대학에 도착한 우리 팀중 이순쾌 주임병리사가 과일통조림 몇통을 샀다. 조재희학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도와준 이순쾌주임병리사의 뒷모습에서 健協의 앞날은 매우 밝은 것 같은 느낌과 정성이 기자의 눈가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학교에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보고싶구요

『재희야 아줌마 왔다』

『선생님 오셨능지요』

『재희 밥먹었나』

『예 -』

여러사람이 갑자기 병실에 들어오니 재희는 무척 이상스럽게 느낀 것 같았다. 보통아이 보다는 몸이 많이 마른 것을 기자는 느낄 수가 있었다.

태어났을때 부터 다른아이들과 는 틀렸어요

『재희는 태어났을때부터 다른 애들과는 틀렸어요. 몸은 말랐고요, 입만 컸어요. 어릴때부터 잠잘때보면 숨을쉴때 이불이 들쭉들쭉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보니(당시 재희나이 3살) 이런 아이는 1/100꼴로 태어난다면서 미국에 가야만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여도 살이 붙지 않고 도리어 더 마르는 것 같았어요』 재희의 어린시절을 이야기하는 모친 강명자씨(59세·진주시하대동106-37번지)는 눈가에 눈물이 맺어지는지 손으로 훔치면서 이야기를 했다.

『저기 이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강명자씨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눈시울이 적셔졌다. 기자역시 그날따라 콧물이 많이 나오는지 콧등이 시큰거리고 눈시울이 적셔지는 것 같았다.

재희와 모친은 끌어안고 울기시작했다. 그것은 지나간 고통을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기자는 느낄 수가 있었다.

재희야! 선생님이 재희를 꼭 껴안아준다.

『재희야! 담임선생님이 재희를 보면 꼭 껴안아 준다』 옆에 있던 이순쾌 주임병리사가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재희 지금 몇살이지?

『13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이요』

- 병원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주사 맞는게 제일 아파요』

- 수술하고 난 후 기분은?

『잘 모르겠어요』

재희는 또다시 엄마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심장의 판 칸막이에 구멍이 났었죠.



『정확한 진단은 심실중격결손(심장병)으로 몸이 자주 피곤하고, 살이 붙지않고 자라지도 않으면서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는 증세도 동반하지요』 조재희학생을 집도한 부산의과대학 정환용 박사. 어린아이 100중 1 명꼴로 해당된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심장병은 조기발견하여 치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재희 학생의 경우는 선천성이기에 수술시기는 좀 늦은감은 있으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장병 사망율은 현재 100명당 5명정도 뿐입니다. 그리고 조재희학생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뭉쳐져서 성공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조기에 발견된 상태라고도 볼 수도 있지요』 의료계에 25여년간 봉직한 정환용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모든병은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를 해야 하며 술·담배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자기의 건강은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끝맺음한다.

이젠 웃을일만 남았지에.

엘레베이터 앞에서 조재희학생과 간호원이 장난치며 노는 모습을 기자는 볼 수가 있었다.

옆에 있던 어머니 강명자씨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경상도사투리로 이렇게 말한다.

“이젠 웃을 일만 남았지에”

한순간 울음의 세계에서 웃음의 세계로 향하고자 발버둥쳤던 지난날의 고통을 이젠 추억으로 돌리겠다는 말로 기자는 풀이하면서 느긋한 발길을 돌렸다.

기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창가에서 여러사람들의 얼굴을 새겨보았다. 재희의 맑고 깨끗한 얼굴, 어머니의 웃는 모습, 이순채주임병리사의 웃는 모습등, 이 모든 사랑의 웃음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었다.